


| | | | |
|--|--|------|---|
|  | <h1>보도자료</h1> <h2>9.24(목) 09:30부터 보도 가능</h2>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미래창조 금융 · 따뜻한 금융 · 튼튼한 금융 |
| 작성부서 |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| | |
| 책임자 | 최용호 과장(2156-9750) | 담당자 | 윤동욱 사무관(2156-9671) |
| 배포일 | '15. 9. 23.(수) 17:00 | 배포부서 | 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2매 |

제 목 : 금융위원장, 기술금융 이용기업 방문 및 현장간담회 개최

□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'15.9.24.(목) 오전, 금융개혁 6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기술금융 이용기업인 '(주)소명'을 방문하여

- 기술금융의 실제 지원 사례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건의 등 기술 금융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

【현장방문 행사 개요】

- (방문기관) (주)소명 ○ (일시) '15.9.24.(목) 09:30~10:30
- (주요 참석자) 금융위원장, KEB하나은행장, 한국기업데이터 사장 등
- (내용) 기술금융 수혜기업 '(주)소명'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

【기술금융 지원 개요】

- '(주)소명'은 철도차량 출입문 개폐시스템 제작 업체
- 최초로 철도차량 출입문 개폐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'받은 기업이나 R&D비용에 따른 적자 등 재무여건 악화로 인해 금융확보에 어려움"
 - * 한국기업데이터의 TCB평가 결과 기술등급 : T3(우수)
 - ** KEB하나은행 자체 신용등급 : C1
- 신규사업 진출 및 추가 수주를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 KEB하나은행의 기술신용평가(TCB평가) 기반 대출 27억원 지원 실시
 - 기술신용평가 없이 업체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대출로 조달했을 경우에 비해 기술금융을 통해 연간 이자비용 34백만원 절감

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,

- "'(주)소명'은 전동차 출입문을 최초로 국산화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이나 초기 개발비용에 따른 적자 등으로 인해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
 - 기술금융을 통해 필요자금을 지원받아 신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모범사례"라고 언급하면서,
- "재무여건 만으로는 대출이 곤란한 우수 기술기업이 기술금융을 통해 자금 확보가 가능해졌다."라고 평가

□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'(주)소명' 임직원들은 기술금융이 경영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,

- 은행의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
-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·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및 재기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

□ 금융위원장은 "정부, 금융기관, TCB가 합심하여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

- '기술신용대출 평가액 연간 20조원 공급'을 목표로 기술금융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나갈 것"이라고 발언

□ 그 밖에 금융위원장은 창의·혁신·창조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성장단계별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「정책 금융 역할강화 방안」을 신속히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임을 밝힘

□ 금융위원회는 금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및 애로사항을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으로서

-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기술금융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기술금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임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넓게 들으십시오
바르게 알리겠습니다